

보도시점 : 2025. 10. 24.(금) 06:00 이후(10. 24.(금) 석간) / 배포 : 2025. 10. 23.(목)

「물류 AI 대전환 혁신랩」 출범 ... 지능형 물류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

- 24일 오후 서울에서 첫 회의, 산·학·연 협업 기반 물류 AI 혁신 본격 시동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10월 24일 오후 ‘물류 AI 대전환 혁신랩(Lab)(이하 혁신랩)’ 첫 회의(kick-off 회의)를 개최하고, 물류 분야 인공지능(AI) 기술을 통한 산업 구조 혁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.
 -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, AI에 기반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지원대책 공동 마련 등 본격적인 협력체계 운영에 착수하고,
 - 이를 통하여 물류산업 혁신 인프라 조성, 기술 개발 및 육성, 산·학·연 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‘물류 AI 대전환 추진방안’을 수립 및 발표할 예정(‘26년)이다.
- 새롭게 출범하는 혁신랩은 물류·산업공학·AI 등 학계, 주요 물류기업 및 AI·자율주행 분야 새싹기업(스타트업), 연구기관 및 물류관련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,
 - 모빌리티(운송), 풀필먼트(보관, 하역 및 포장) 등 기존 물류 영역을 비롯하여 플랫폼, 데이터 등 정보화, 표준화 및 법·제도 개선 등 전문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소규모 워킹그룹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-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내외 물류분야에서의 AI활용 사례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하여 학계 및 업계 관계자의 발표를 시작으로,
 - 물류산업의 AX·DX 가속화를 통한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향후 혁신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.

* AX(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): 인공지능 전환
DX(Digital Transformation): 디지털 전환

-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“물류산업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으로, AI와 같은 첨단 기술과의 결합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”라고 강조하면서,
- “물류산업의 모든 주체가 모여 AI 대전환을 통한 물류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완국 (044-201-3993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권지희 (044-201-3994) 윤덕웅 (044-201-4005)

